



## 동방 경교와 서방 시리아 고대교회

### 망각과 투쟁의 역사, 랍반 바르 사우마의 생애를 중심으로

The Eastern Nestorian Church and the Western Syrian Ancient Church : A History of Oblivion and Struggle with Rabban Bar Sawmas Life

---

**저자** 이재화  
**(Authors)** Jae Hwa Lee

**출처** [Muslim-Christian Encounter 10\(2\)](#), 2017.9, 147-183(37 pages)  
**(Source)**

**발행처**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Publisher)**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52292>

**APA Style** 이재화 (2017). 동방 경교와 서방 시리아 고대교회. Muslim-Christian Encounter, 10(2), 147-183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11:05:49  
**이용정보**  
**(Accessed)**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동방 경교와 서방 시리아 고대교회 : 망각과 투쟁의 역사, 랍반 바르 사우마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재화\*

- I. 들어가는 말
- II. 동방기독교사
- III. 랍반 바르 사우마의 생애
- IV. 동방 기독교사의 선교학적 평가
- V. 동방기독교사 연구의 남은 과제
- VI. 나가는 말

\* 킹스웨이 센터 대표

## I. 들어가는 말

필자가 경교(景敎)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우연히 동네 기독교 책방에 들렀다가 김광수 목사의 “동방기독교사”라는 책을 발견하였다.<sup>1</sup> 그 책을 사가지고 와 정신없이 읽느라 꼬박 새웠던 그 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후 신대원 재학 시절 김광수 목사가 학교에 와서 동방교회사를 강의하여 여러 모로 배움을 얻었고, 또한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의 사본을 선물로 받기도 하였다.

현재 터키 개신교의 초기 지도자들 중 일부는 동방교회, 더 정확히는 시리아 고대교회 출신이다. 이들의 경건과 깊은 신앙에 대해 관심을 두던 중 남동부의 중심도시 디야르바크르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현지교회 지도자 집에 머물다가 우리 부부는 그 도시 남쪽의 투르 압딘(Tur Abdin, 하나님의 종들의 산)<sup>2</sup> 평원 소재 성 가브리엘 수도원을 찾은 적이 있다. 그때가 1999년 6월 25일이었다. 397년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시리아 교회 총대주교청이 있는 곳으로서 시리아 교회의 정신적 고향이다.<sup>3</sup>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 시리아인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반유목민 생

1 김광수, 『동방기독교사(東方基督教史)』, (서울: 기독교문사, 1971).

2 Sebastian Brock, “TUR ‘ABDIN – a Homeland of Ancient Syro-Aramaean Culture,” *Turabdin: Living Cultural Heritage*, the Preface, 22-23([www.aramaic-dem.org/English/History/14.htm](http://www.aramaic-dem.org/English/History/14.htm)). 시리아-아람인의 본산지인 투르 압딘은 시리아어로 ‘하나님의 종들의 산’ 이란 뜻이다. 구약에서 투르 압딘 평원의 남쪽에 위치한 헬본(Helbon, 비옥이란 뜻)은 양질의 포도주 생산지였다(겔 27:18). 다메섹의 북쪽 19km 지점에 있는 할분(Halbun)과 동일시된다. 투르 압딘 평원은 초대교회 이후 시리아 고대교회의 본산지로 무수한 수도원과 시리아 교회 지도자들의 행적으로 유명한 곳이나, 오늘날 IS 문제 등으로 고난과 순교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터키 행정 구역상 마르딘 주에 속해 있고, 영적 중심지는 미디얏(Midyat)이다.

3 <http://www.assyriatimes.com & s.wsj.net/article/SB123638477632658147.html>, Gabriel Sawma, “The Great Monastery of St. Gabriel in Captivity”를 참고하라.

활을 하는 예지디인들과 쿠르드인들이 함께 살고 있고<sup>4</sup>, 현재 IS 문제 등 중근동의 정치적, 종교적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전쟁과 학살 등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때의 방문을 계기로 동방교회사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분류할 때 동방의 경교사는 선교역사에서 잊혀졌으나, 서방의 시리아교회는 여전히 이슬람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 대상을 페르시아와 터키, 중근동의 동방교회로 한정하고, 몽골 일한국과 지중해권의 기독교 국가들 간의 관계 및 랍반 사우마의 생애와 그 당대 동방교회의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때 선교운동사적인 측면에서 동방교회 선교역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고찰함으로써 21세기 터키와 중앙아시아 투르크권 선교에 대한 역사적 의의 및 선교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각 시대마다 일어난 선교운동들은 나름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선교적 컨텍스트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선교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할 경우 현대교회에 자칫 편견과 잘못된 선교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각 선교운동이 가지는 한계 상황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선교운동사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랍반 사우마(Rabban Sawma)의 생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경교 선교의 역사를 선교운동사적 측면에서 다루는 방법론을 채택한다.

4 Martin van Bruinessen, "Reflections on Midyat and Tur Abdin," "Kesf-i Kadim: Matiate'den Midyat'a," *International Midyat Symposium held in Midyat*, 7-9 (October 2011): 1-11.

## II. 동방기독교사

동방교회를 다룰 때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연대기 작성 및 교회 분포와 관련한 지도 그리기가 아닌가 싶다. 연대기 작성은 동방교회의 역사가 세계교회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교역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다룰 수 있는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이 연대기 작성을 통해 우리는 동방교회의 역사 및 현황을 담은 선교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이 지도는 동방 기독교의 선교사적 위치와 그 남은 과제들을 뚜렷하게 확인시켜 줄 것이다.

### 1. 동방기독교사 연대기

동방교회 연구는 연대와 지리를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페르시아 이동의 인도 도마교회와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 동진한 경교의 역사이다. 둘째는 페르시아, 터키, 중근동에 현재까지 활동 중인 시리아 교회의 역사이다. 여기서 필자는 그 뿌리는 같으나 꺾어온 역사적 정황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편리상 각 교회를 동방 경교와 서방 시리아교회라고 칭하기로 한다.

#### (1) 오스로에네 왕국 시대

제1차 유대-로마전쟁(66-73) 당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70), 성전이 불타고 유대독립 저항군이 진압되는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전역의 교회와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때 바울, 베드로 등이 활동한 교회사는 사도행

www.kci.go.kr

전에서 확인되나, 로마제국 바깥 지역들의 교회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260-340)가 쓴 교회사에서 얻을 수 있다. 그는 오스로에네 왕국의 여왕 헬레나에 관한 간략한 기록을 남겼다.<sup>5</sup>

오스로에네 왕국(주전 132-244)의 수도는 에뎃사(Edessa)였고, 왕들은 아브가르(Abgar), 아브가루스(Abugarus), 또는 마누(Manu)라 불렸다. 아라비아 반도 북쪽 아랍계 나바테아인들로 추정되는 이 왕국의 이름은 오르하이 부족(Orhai) 족장 오스로에스(Osroes, Osrhoes)에서 유래하였다.<sup>6</sup> 다메섹에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던 방백이 섬긴 아레타 3세(Aretas III, 고후 11:32-33) 역시 아랍계 나바테아인이었다.<sup>7</sup> 다대오 행전 등 비 정경 출처들에 따르면 다대오(눅 6:16, 요 14:22, 행 1:13)와 만난 아브가르 5세(B.C. 4-A.D. 7 또는 A.D. 13-40) 또는 아브가르 8세(177-212) 통치 기간 동안 왕국의 기독교화가 발생하였다.

프란시스 부르키트(Francis C. Burkitt)는 아브가르 8세 때 에뎃사의 개종이 있었다는 증거는 사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5 Eusebius Pamphil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Ἐκκλησιαστικὴ ἱστορία), C. F. Cruse, (New York: T. Mason and G. Lane, Chapter 12, 1839), 61-62.

여기서 유세비우스는 54-55년 사이에 발생한 유대 지방의 대 기근(행 11: 28-30) 때 이집트에서 대규모 곡물을 사들여 도움을 준 오스로에니아인들(Osrhoenians)의 여왕 헬레나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를 기념하는 찬란한 유적들이 오늘날 엘리아(Elia)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외곽에서 여전히 발견된다고 기술하였다.

헬레나는 아디아 베니(Adia beni)의 여왕이라고도 적었다. 그 이유는 헬레네가 두 왕국의 왕들을 남편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유세비우스가 아디아 베니로 기술한 아디아베네(Adiabene) 왕국은 그녀와 남편, 아들들을 통해 유대교로 개종하였다. 그녀와 가족이 통치한 두 왕국은 모두 유대교 왕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오스로에네 왕국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여겨진다.

6 <https://www.wikiwand.com/en/Osroene>

7 Francis Crawford Burkitt, *Early Eastern Christianity*, London: John Murray, Chapter I, 1904, 7.

주장한다.<sup>8</sup> 월터 바우워(Walter Bauer)는 이 전설이 이단종파에 대항하여 일치, 정통성, 사도적 계승을 재강화 시켜주는 출처들이 전혀 없이 쓰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윌리엄 아들러(William Adler)는 아브가르 5세의 개종 이야기는 그 당시 막 기독교로 개종한 아브가르 8세가 자기 도시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노력으로 사용한 어느 희귀 고서 연구가의 작품이었다고 제시한다.<sup>10</sup>

최근 이 주제에 관한 중요한 학문적 진전은 데스레우마옥스(Desreumaux)의 주석이 딸린 번역, 이 전설에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는 엠. 일렛(M. Illert)의 컬렉션, 문헌들의 사상을 자세히 연구한 에스. 피. 블록, 시드니 에이치, 지리피취, 알렉산더 미라코빅(S. P. Block, Sydney H. Griffith, Alexander Mirkovic)<sup>11</sup>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현재 대다수 학자들은 아브가르의 개종에 관한 텍스트들의 저자와 편집자의 목적은 시리아인 에프라엠(Ephraem the Syrian)의 정치관과 교회관에 근거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로서 에돔사 기독교화의 역사적 재건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야기들이 특히 바르다이산(Bardaisan)에 대한 응답으로서 생겨난 3세기의 논쟁들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 여전히 이 이야기의 기원들은 매우 불명확하다.<sup>12</sup>

8 Burkitt, 1-38.

9 Walter Bau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Robert Kraft & Gerhard Krodel 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2-17.

10 [https://www.wikiwand.com/en/Abgar\\_V#/CITEREFBauer1971](https://www.wikiwand.com/en/Abgar_V#/CITEREFBauer1971)에서 인용.  
William Adler, "Christians and the Public Archive"(2011). In Mason, E.F. *A Teacher for All Generations: Essays in Honor of James C. VanderKam, Supplements to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Brill, 937.

11 Alexander Mirkovic, "Prelude to Constantine: The Invented Tradition of King Abgar of Edessa," Ph.D Diss., (Vanderbilt University, 2002).

12 [https://www.wikiwand.com/en/Abgar\\_V#/CITEREFBauer1971](https://www.wikiwand.com/en/Abgar_V#/CITEREFBauer1971)에서 재인용.

필자는 여기서 부르킷(Burkitt)이 주장한 아브가르 8세 때의 개종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유세비우스가 아브가르 5세의 아내인 헬레나를 오스로에스의 여왕이자 아디아 베니(Adia beni)의 여왕이라고 기술하기 때문이다. 헬레네가 두 왕국의 왕들을 남편으로 두었다. 아디아 베니로 표현한 아디아베네(Adiabene) 왕국은 그녀와 남편, 아들들을 통해 유대교로 개종하였기에, 그녀와 가족이 통치한 두 왕국은 모두 유대교 왕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오스로에네 왕국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에뎃사를 수도로 한 오스로에네 왕국의 복음화는 다대오 이후 아브가르 8세(177-212) 재위 기간까지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로에네 왕국은 아랍계 나바테아인 통치 집단과 아랍어, 즉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구조상 이 왕국의 통치언어는 아랍어가 아니라 고대 시리아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로서 170년경 타티안(Tatian, 120-173)이 사복음서를 단권으로 편집한 “디아테사론”을 만들 때 헬라어와 시리아어를 사용하였다. 타티안의 활동 범위로 볼 때 헬라어 디아테사론은 헬라화된 안디옥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시리아어 디아테사론은 비헬라화된 페르시아와 가까운 동부 지역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 후 6세기경에는 시리아 원문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시리아어 성경 페쉬타(Peshitta) 역시 이런 가능성에 대한 문헌적 증거를 제시한다고 본다.

동방기독교의 첫 출발지이자 훗날 경교의 원천이었던 오스로에스 왕국의 기독교화가 3세기 때까지는 마무리되는 과정을 통해



고대 시리아어권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가 동방에서는 공용어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아람어권 인구가 압도적인 동부 레반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오스로에네 왕국의 선교 사례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

이 왕국이 위치한 지역은 셀류쿠스 제국에서 잠시 평화를 누렸으나, 그 이후 이 지역으로 진출한 로마제국과 동쪽의 제국들(파르티아, 사산조) 간의 패권 다툼은 끝없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고대 시리아어권 사람들은 사분오열 흩어졌고, 상당수가 페르시아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흩어짐이 있기 전에 복음화 된 시리아인들의 교회는 미지의 동방으로 향할 선교운동의 첫걸음을 땀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방패가 될 국가는 사라졌으나, 이제 오스로에네 왕국 시대의 교회들은 복음을 들고나갈 동방 선교운동의 깃발을 들게 된 것이다.

## (2)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

오스로에네 왕국 시절을 뒤로 한 채 페르시아에 도착한 시리아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지의 동방이었다. 당시 지도를 살펴보면 사산조 페르시아의 동쪽 변방들과 당 제국의 서쪽 안 서도 호부는 서로 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스로에네 왕국 시절에는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끼어서 간간히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 들었던 동방 소식을 이제는 일상사처럼 듣게 된 것이다. 헬라화 된 로마 세계의 배타성과는 달리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서의 개방성이 높은 이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안식처를 얻으면서 평화의 단 맛을 보게 되다. 그러나 굴러 들어온 돌 같은 시리아 교회의 급성장은 기존의 조로아스터교에 위기를 주면서

www.kci.go.kr

긴장이 촉발되었다.

로마제국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사산왕조는 기독교를 관용했으나, 마니교나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로마가 점차 기독교화된 339년 이후 기독교인들은 샤푸르 2세와 그의 후계자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기독교는 사산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때로는 간헐적으로 때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페르시아 내의 국지적이거나 전국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시리아 교회의 확산은 페르시아에서 정착한 4세기 초기 전국에 세워진 수도원들의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sup>13</sup>

이때 특히 대 수도원들이 부흥운동의 중심부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요인은 사제들의 결혼을 의무화한 교회 법이었다. 5세기 니시비스 주교였던 바르 사움 때부터 시리아 교회는 사제들의 결혼을 의무화하면서 수도원 중심 신앙 생활을 탈피하였다. 둘째 요인은 사제들을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파견하는 가운데 행해진 탁월한 도제식 훈련이었다. 사제들로 하여금 대 수도원에 머물기보다는 훈련 후 나가서 새로운 수도원들의 기초를 세우도록 파견하였다. 이런 전략이 이란 전역의 주(šahr)들에서 수도원들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571년 터키 남동부 평원 투르 압딘(Tur Abdin)의 이즐라 산(Mt. Izla)에서 카슈카르의 아브라함(Abraham of Kaškar<sup>14</sup>)은 동방 시리

13 Florence Jullien, "East Syrian Monasteries in Sasanian Ira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5,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east-syrian-monasteries> (accessed on 11 November 2015).

14 Florence Jullien, "Abraham of KAŠKAR,"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5, available at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abraham-of-kaskar> (accessed on 29 October 2015).

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신자들의 훈련 회복에 기초한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다.<sup>15</sup> 그 당시 총대주교 마르 압바(Mar Abba, 542-52)가 세속적인 성직자였기에 그는 동방 시리아 수도사들을 위한 은둔 생활의 개혁자가 되었다. 세에르트 연대기(Chronicle of Seert)는 그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한다: “(그가 준 것은) 큰 수도원들과 작은 수도원들에 대한 새로운 형식이었다.”<sup>16</sup> 이 개혁은 신앙의 정체성을 역설한다. 아브라함은 삭발식, 특별한 사제복, 신발 같은 구별된 표식들을 제정하였다.<sup>17</sup> 이는 자신의 수도사들과 시리아-정교회(Syro-orthodox) 측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sup>18</sup> 다디쇼(Dādišo, 604년 사망)와 바바이(Bābay, 628년 사망)같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들이 한 역할은 시리아-정교회측 교회 수가 급속히 늘어날 때, 그리고 이슬람이 확산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을 때 동방 시리아 교회(the East Syrian church)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훗날 시리아-정교회가 서방의 로마가톨릭과 연합을 시도하면

15 E. A. Wallis Budge, *The Book of Governors. The Historia Monastica of Thomas Bishop of Marga A.D. 840 I-II*,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 Col., Ltd., 1893), 23-24, 41-42.

16 Addai Scher, *Histoire Nestorienne Inédite (Chronique de Séert)* II/1, (Paris: Patrologia Orientalis 7, 1911), 172[80].

17 Chabot, 1896, 7, no. 14; Scher, 1911, II/1, 134 [42]-135[43]; Budge, I, 23; II, 1893, 40-41.

18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정교회(Syro-orthodox)는 동방정교(Oriental Orthodox)라는 명칭 때문에 혼동을 준다. 동방정교회는 에베소 3차 공의회 때 결의된 교리까지만 인정하고, 칼케돈 4차 공의회부터 결의된 교리를 거부한다. 흔히 동방 시리아 교회와 더불어 취급되나, 동방 시리아 교회의 네스토리우스파가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한 데에 비해서 동방정교회는 예수에게는 신성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단성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정통파 측의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단성론 교회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애초에 단성론이라는 낙인자체가 이들에게는 표현상의 문제나 다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떠한 표현방식이던 이들 역시 신성이 육화했으니 인성을 수용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때문에 단성론이라는 낙인자체를 싫어했을 것이다. [https://hamu.mirror.wiki/w/오리엔트%20정교를\\_참조하라](https://hamu.mirror.wiki/w/오리엔트%20정교를_참조하라).

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포기할 때도 자기 신학을 지켜냈고, 이슬람 치하에서도 십자군으로 대표되는 로마가톨릭과 자신들을 구별 시킴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는 과거 오스로에네 왕국 시절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 끼어서 고난을 겪으면서 체득한 역사적 교훈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교회 개혁운동이 점차 자리 잡아가는 동안, 이전부터 서서히 이동 중이던 에프탈족 등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의 여러 투르크족들이 페르시아로 대거 유입하면서 시작된 혼란으로 인해 사산조 페르시아 사회의 긴장은 점차 고조되었다.

7세기 접어들면서, 특히 630-640년 간 남부 아라비아 반도와 서부 지역에서 밀려온 아랍인들에 의해 사산조 페르시아 사회는 와해되어갔다. 651년에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피신한 최후의 황제 야즈데게르드 3세가 메르브에서 암살되자, 제국 내 시리아교회 역시 서구 세계의 눈 앞에서 점차 멀어지다가 마침내 저 멀리 동방 세계를 향한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 Ⅲ. 랍반 바르 사우마의 생애

랍반 바르 사우마(Rabban Bar Sawma, 1220-1294)는 랍반 사우마(Rabban Şawma), 랍반 차우마(Rabban Çauuma), 그리고 중국식 이름인 라빈사오위마(拉賓掃務瑪)로 알려진 중국 내 동방 네스토리안 교회의 외교관이 된 중국 원 제국 때의 투르크계 수도승이었다. 그는 투르크-몽골계 옹구트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서방 역사와 유럽 교회사에 갑작스레 출현한 그의 등장은 선교운동사적

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 걸까, 먼저 그의 출신 부족인 옹구트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1. 옹구트족

옹구트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김호동은 그 종족 기원을 840년 위구르 제국이 망한 후 내몽골 부근으로 내려 온 위구르인과 서 돌궐인의 혼성에서 찾는다.<sup>19</sup> 761년에 비귀 카간(Bögu Kagan, 759-799 재위)이 소구드인들이 소개한 마니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으나, 779년에 툰 바가 타르칸(Tun Baga Tarkan, 779-789 재위)이 비귀 카간(Bögu Kagan, 759-799 재위)을 살해하고 소구드인 2천여 명을 학살하면서 마니교 탄압 정책을 시작하였다.<sup>20</sup> 이후 840년에 키르기즈 군대의 침공으로 붕괴되면서 유민들이 중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혼란기 가운데 그들이 언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 몽골 초원 지대에서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인 케레이트족과 나이만족이 종족 기원 면에서 볼 때 옹구트족은 같은 뿌리인 이들을 통해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1</sup> 그러나 옹구트족이 기독교를 접했을 때 그들에게 소개한 이들이 부족민들이었는지 시리아인 선교사들이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음

19 김호동,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서울: 까치글방, 2002), 183-189.

20 [https://www.wikiwand.com/tr/Tun\\_Baga\\_Tarkan](https://www.wikiwand.com/tr/Tun_Baga_Tarkan); 김호동, 180. 김호동은 비귀 카간을 살해한 인물이 알프 쿠틀루크 빌게라고 기술하는데, 아마도 알프 쿠틀루크 빌게와 툰 바가 타르칸을 혼동한 것 같다.

21 Henry Yule, *Cathay and the Way Thither*, vol.1, London, 1915: *The Hakluyt Society*, 115; Alphonse Mingana, *Early Spread of Christianity*, 11-15; E. C. D. Hunter, "The Conversion of the Kerait to Christianity in A.D. 1007," *Zentralasiatische Studien*, vol. 22(1989-91), 142-163, 김호동, 재인용, 187-189.

에서 논하게 될 바르 사우마 당대 옹구트족 내의 기독교는 이미 깊이 정착해 있고, 자립하여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성숙한 교회 환경을 관찰할 수 있다.

## 2. 랍반 바르 사우마

그는 몽골 통치 하의 중국에서 자기 제자들 중 한 명인 랍반 마르코스(Rabban Markos)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 도중 불안정한 전쟁 상황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평생 도달하지 못한 대신 몽골 통치 하에 바그다드에서 여러 해를 보냈다. 젊은 마르코스는 마침내 동방교회의 총대주교(Patriarch of the Church of the East)로 선택되었고, 훗날 자기 스승 랍반 바르 사우마에게 몽골 대사 자격으로 유럽으로 파송 받는 또다른 임무를 제안하였다. 나이든 수도승은 교황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군주들과 만나 프랑코-몽골 동맹(Franko-Mongol Alliance)을 맺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 임무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몇 년 뒤 바그다드에서 랍반 바르 사우마는 자신의 여행기를 문서로 남겼다. 그가 자신의 여행기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 보고서는 현대 역사가들에게 유래 없는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열정적으로 지식과 넓은 견식, 그리고 정치인 같은 관찰자에 의해 채색된 십자군 시대의 종결에 선 중세 유럽의 그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코 폴로의 유럽 귀환 이전에 있었던 그의 여행들과 그에 관한 글들은 서구를 바라보는 동양인의 정반대 관점을 제공한다.

## (1) 초기 생애

랍반(선생) 바르 사우마는 1220년에 당시 중두(Zhongdu)로 알려진 오늘날의 베이징 근처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훗날 몽골 통치 하에서 칸발라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레고리 바르 헤브라에우스(Gregory Bar Hebraeus)에 따르면 그는 투르크계 위구르인 출신이다. 중국측 자료들은 그의 가계가 대대로 옹구드(Wanggu, Ongud)라고 기술한다. 이 부족은 원 왕조(元朝)의 몽골 계급의 일부로서 분류된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이름 바르 사우마(bar Sauma)는 아람어로서 “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다.<sup>22</sup> 그는 “네스토리안” 교회의 신자였고, 20세 전후에 은둔 수도사가 된 후 수십년간 종교 선생으로 살았다.

그가 처음 은둔한 산중은 대도(大都, 현 베이징) 부근이었다. 나중에 그가 수도 생활을 하던 동승주(東勝州, 현 네이멍구 자치구 탁현 지방)로 찾아온 수도사 마르쿠스와 함께 금욕과 단식 수행을 계속 하였다.<sup>23</sup>

## (2) 예루살렘으로의 성지순례

그러던 중 중년기 즈음 랍반 바르 사우마는 자기 제자들 중 가장 어린 랍반 마르코스(Rabban Marcos)와 함께 예루살렘 순례를 가고자 대도(일설은 옹구트 왕가의 거성인 정주)에서 출발하였다.<sup>24</sup>

22 김호동, 243. 그 당시 칸발라크에 살던 순회사제 시반과 그의 처 케얌타가 결혼 후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서 오랜 기간 금식 끝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이름을 ‘바르 소마’, 즉 ‘금식의 아들’이라 지었다.

23 Ibid., 245. 마르코스는 내몽고 토양에서 그곳 사제 바이니엘의 네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건실한 믿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정을 주었고, 종교적인 수련에 더욱 정진하기 위해서 당시 은둔의 수행자로 명망이 높던 랍반 소마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24 정수일, “라뻬 바사우마(Rabban Bar Sauma)의 서아시아 및 서유럽 사행”, 『실�크로드 사전』, (서울: 창비, 2013), 여기서 정수일은 랍반 바르 사우마 일행이 중국을 출발한 연

그들은 옛 탕구트 왕국 지역인 동승과 당을(唐兀, 현 영하寧夏 은천銀川)을 지나 실크로드 남도인 둔황의 옥문관이나 양관으로부터 선선을 거쳐 쿤룬 산맥 북쪽에 이르는 길을 택해 간단(幹端, 현 신장 위구르자치구 허토펜和田)에 도착하였으나, 전란과 기근에 휩싸인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북상해 카쉬가르와 탈라스를 지나 탑랄사(塔刺思, 현 카자흐스탄 간브르)에 이르렀다. 여기서 오고타이 한국의 카이두(Khaidu, 海都) 칸을 알현하고 여행보증서를 발급받아 호라산(Khorasan,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당시 일한국의 문화 중심지였던 마라가(Maragha, 아제르바이잔)과 모술을 지나서 아르메니아의 아니(Ani, 현재 터키 동북부 국경지대)에 도착하였다.<sup>25</sup>

여기서 시리아 남부로 가는 통로들이 위험하다는 경고들이 있었기에, 그는 목적지를 바꾸어서 몽골 지배의 일한국(Ilkhanate)으로 여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동방교회 총대주교 마르 덴하 1세(Mar Denha I)의 환대를 받았다. 1266년에 마르 덴하 총대주교는 두 수도사에게 몽골 일한국 통치자 아바카(Abaqa)를 알현하기를 권하였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총대주교 서품을 위한 추인(追認) 서한을 얻어내기 위함이었다. 여행하는 동안 랍반 마르코스는 “네스토리안” 주교로 선포되었다. 그때 총대주교는 메신저로서 두 수도사를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고자 했지만, 통과해야 하는 관문 지역의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자 바그다드에 머물렀다. 1281년에 총대주교가 소천하였을 때, 랍반 마르코스

대가 1275년이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이 연도는 랍반 바르 사우마 자신이 직접 기록해 서 남긴 여행기와 야발라하 3세와 관련한 문헌 등을 놓고 볼 때 너무 늦게 책정된 것 같다. 그보다는 당시 총대주교 마르덴하 3세와의 만남 등을 고려할 때 1265년 전후가 더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그가 중년 시기에 중국을 출발한 것으로 상정해 본다.

25 Ibid., 재인용.



가 그를 직위를 이어받아 마르 야발라하 3세(Mar Yaballaha III)로 추대되었다.<sup>26</sup> 두 수도사는 아바카의 추인을 받고자 마라가로 여행 하였으나, 일한국 통치자가 도착 전에 사망하면서 아들 아르군 칸(Arghun Khan)이 계승하였다.

아르군은 공동의 적인 무슬림 맘룩조(Mamluks)에 대항하여 기독교 유럽인들과 전략적으로 프랑코-몽골 동맹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몇 년 후 새 총대주교 마르 야발라하는 자기 스승 랍반 바르 사우마에게 교황과 유럽 군주들을 만나기 위한 대사직을 제안 하였다.

### (3) 유럽 대사

1287년에 장로 바르 사우마는 비잔틴 황제, 교황, 유럽 왕들에게 보낼 아르군의 선물과 서한들을 가지고 유럽 행 여행을 출발하였다. 그는 아르군이 1285년에 이미 교황 호노리우스 4세에게 파견된 또 다른 “네스토리안” 이사 켈레메치(Isa Kelemechi)<sup>27</sup>의 대

26 [https://www.wikiwand.com/en/Patriarchs\\_of\\_the\\_Church\\_of\\_the\\_East](https://www.wikiwand.com/en/Patriarchs_of_the_Church_of_the_East), 동방교회의 총대주교직 계승과 관련하여 야발라하 3세(1245-1317)의 승계는 모호한 면이 많다. 랍반 마르코스의 총대주교직 계승 시기는 동방교회 총대주교직 계승 연대기 중 불확실한 시기에 속한다(1318-1552).

27 Richard Foltz, *Religions of the Silk Road*, 2n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125-126. 김호동, “이사 켈레메치(1227-1308)의 생애와 활동,” 중앙아시아학회, 『중앙아시아연구』, 11권 (2006): 75-114. 이사 켈레메치는 원 제국에서 활동한 시리아 네스토리안 교회 출신의 색목인 켈레메치(동역관이란 뜻)로 출발하여 훗날 원 제국 전국의 기독교인과 교회를 총괄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직책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쿠빌라이 칸의 천문학 관측 관리로서 이슬람 천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1271년에 일한국으로 파견된 과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무슬림들의 폭력과 폐해가 극심해지자, 쿠빌라이에게 건의하여 할랄 도축, 할례 등에 대한 반 이슬람 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285년 일한국 통치자 아르군은 그에게 서신을 주어 교황 호노리우스 4세를 만나게 했다. 그 목적은 프랑코-일한국 동맹을 결성하여 반 이슬람 군사 작전을 펴기 위함이었다.

사직을 이어 받았다.<sup>28</sup>

랍반 바르 사우마는 대규모 수행원들과 함께 30여마리 운송용 짐승들을 타고서 여행하였다. 동행자들은 동방교회 측의 사바디누스(Sabadinus),<sup>29</sup> 제노아 금융회사의 일원이자 통역자로서 도운 토마스 디애퍼시스(Thomas de Anfusus or Tommaso d'Anfossi),<sup>30</sup> 이태리인 통역자 유겟투스(Uguetus Ugeto, Ughetto)였다.<sup>31</sup> 바르 사우마는 중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는 유창했으나 유럽어들을 전혀 몰랐던 것 같다.<sup>32</sup> 유럽인들은 그와 대화할 때 페르시아어를 사용하였다.<sup>33</sup> 아흐멧 제히로글루(Ahmet M. Zehiroğlu)는 그가 아르메니아에서 트레비존드 제국(Empire of Trebizond)<sup>34</sup>까지 가는 육로나 룸 술탄국(Sultanate of Rum)<sup>35</sup>에서 흑해의 시밋소(Simisso)<sup>36</sup>로 가는 육로 중 한 군데를 택하여 이동한 후 비잔틴 수도 콘스탄

28 Peter Jackson, *The Mongols and the West, 1221-1440*, (New York: Routledge, 2005), 414.; John Andrew Boyle,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778.

29 <https://hal.archives-ouvertes.fr/hal-00415883/document>

Denise Aigle, *De la 'non negociation' à l'alliance inaboutie Reflexions sur la Diplomatie Entre les Mongols et l'occident latin*, *Oriente Moderno*, LXXXVIII, 395-434, 1998.

30 Morris Rossabi, *From Yuan to Modern China and Mongolia: The Writings of Morris Rossabi*, 28 November, BRILL, 387, 2014.

31 Rene Grousset, "Histoires des Croisades III", 845; Morris Rossabi, *From Yuan to Modern China and Mongolia: The Writings of Morris Rossabi*, 29 (November, 2014), BRILL, 103-104.

32 Rossabi, 385.

33 Ibid., 386.

34 제4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불법으로 비잔틴 수도 콘스탄티노폴을 점령하자, 비잔틴 콤네노스 왕가의 알렉시오스 1세가 흑해 동부 트레비존드에서 건설한 제국(1204-1461)이다. 오늘날 트라브존 시에 해당한다.

35 Suleiman ibn Qutulmish(1077-1086 재위)가 데 셀чук제국으로부터 분리하면서 당시 룸(Rum), 즉 로마의 땅으로 불린 소아시아의 이즈닉에 세운 제국(1077-1308)이다. 이즈닉은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 콘스탄티노폴을 완공하기 전 임시 수도로 사용하면서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한 곳이기도 하다.

36 현재 터키 흑해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삼순(Samsun) 시의 옛 지명이다.

티노플까지는 배를 탔을 것으로 추정한다.<sup>37</sup> 이곳에서 바르 사우마는 비잔틴 황제 안드로니쿠스 2세를 알현하였다.<sup>38</sup>

자신의 여행기에서 바르 사우마는 성 소피아 교회(Hagia Sophia)<sup>39</sup>의 아름다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그후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까지 다시 배로 이동하였다. 1287년 6월 18일 그는 에트나 산(Mt. Etna)의 엄청난 화산 폭발에 대한 목격담을 기록하였다.<sup>40</sup>

시실리에 도착한 며칠 뒤인 1287년 6월 24일 성요한 기념일 저녁기도 시간의 소요로 인해 소렌토 만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 전투는 바르 사우마를 자기 영내에서 환영해 주었던 찰스 2세와 시실리 왕인 아라곤의 제임스 2세 간에 터졌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제임스 2세가 이기면서 1만2천명을 사살하였다. 그는 여기서 로마로 이동하였으나, 교황 호노리우스 4세는 얼마전에 사망하였기에 만나지 못했다.<sup>41</sup> 그래서 바르 사우마는 추기경들과 협상하고자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였다. 그런 다음 파리로 가는 도중에 투스카니(Tuscany)<sup>42</sup>에 잠시 체류한 후 1287

37 [https://www.academia.edu/11320426/Bar\\_Saumas\\_Black\\_Sea\\_Journey\\_1287\\_Ahmet\\_M\\_Zehiroglu\\_Bar\\_Sauma'n\\_i\\_n\\_Karadeniz\\_Yolculuğu](https://www.academia.edu/11320426/Bar_Saumas_Black_Sea_Journey_1287_Ahmet_M_Zehiroglu_Bar_Sauma'n_i_n_Karadeniz_Yolculuğu), 2014, Trabzon, 1-8.

38 이 황제는 콤네모스 왕가의 비잔틴 황제인 Andronikos 2세 Palaiologos (1259-1332, 재위)를 가리킨다.

39 이 교회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황후 테오도레와 함께 세운 비잔틴 제국 최대 규모의 교회로서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청의 소재지였다. 그러나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한 그 즉시 모스크로 개조되었다가, 터키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아타투르크에 의해 박물관(1935)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관광명소로만 사용되고 있다.

40 시실리 섬 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산은 해발 3329미터로서 유럽에서 가장 높고 큰 활화산 분화구 5군데가 있다. 1600-2012년 사이에 77회 이상 화산 분출이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41 교황 Honorius 4세 (1210-1287)는 재위하는 동안(1285-1287) 친 프랑스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래서 바르 사우마 일행은 그를 알현하여 프랑코-일한국 동맹에 관해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다.

42 이탈리아 중서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로서 플로렌스 수도이다. 이곳은 16세기 메디치 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탄생지로도 유명하다.

과 1288년 사이 겨울을 금융 자본 체제로 유명한 제노아 공화국<sup>43</sup>에서 보냈다. 프랑스에서는 몽골 사신 일행의 도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 미남 왕 필립 4세(Philip the Fair)와 함께 한달간 지냈다. 필립 4세는 바르 사우마 일행이 몽골 땅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에 많은 선물을 하사하면서 귀족 고베르 드 엘리비유(Gobert de Helleville)로 하여금 동반하도록 명령하였다. 1288년 2월 2일 이 귀족은 로베르 드 센리스(Robert de Senlis)와 기몽 드 브뤼예레(Guillaume de Bruyères)라는 이름의 두 사제와 궁노수 오탱 드 부르쥬(Audin de Bourges)와 함께 출발하였다. 그들은 바르 사우마가 얼마 뒤 로마에서 돌아왔을 때 일행에 참여하여 페르시아까지 배웅하였다.<sup>44</sup>

그 당시 영국이 점령 중이었던 프랑스 남부 가스코니(Gascony)에서 바르 사우마는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를 만났는데, 아마도 보르도(Bordeaux)의 수도였을 것이다. 에드워드는 사절단에 열렬히 환영하였으나 결국에 가서는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국내 소요로 인해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르 사우마는 새로 선출된 교황 니콜라스 4세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종려 주일의 성찬식에 참여하였다. 1288년 그는 라틴 기독교의 수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니콜라스는 바르 사우마가 동방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는 임무를 수여한 후 그에게 마르 야발라하(Mar Yaballaha)에게 선물할 로마 교황의 삼중관(三重冠, tiara)을

43 제노아 공화국(1005-1797)은 제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로 인하여 라이벌 베니스와 비잔틴 제국 관계가 틀어지자, 그 틈을 이용하여 비잔틴과 가까워지면서 흑해와 크림반도 지역까지 무역로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 후의 최 전성기는 피사전쟁(1284), 베니스 전쟁(1298)에서 승리한 시기였다. 이런 국제 정세로 인해 바르 사우마 일행이 이곳에 도착한 시기는 제노아와 일한국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것이다.

44 Grousset, 845.

전달하는 의무를 위임하였다. 그래서 바르 사우마는 1288년에 바그다드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유럽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수많은 선물을 가져갔다.<sup>45</sup>

그때 전달된 서신들은 아르군(Argun)이 일한국을 위해 외교관 역할을 한 제노아 상인 쥐 조르피 바르살레오(Buscarello de Ghizolfi)편으로 보내왔던 1289년도 서신에 대한 답신이었다. 필립 4세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르군은 바르 사우마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sup>46</sup>

“영원한 하늘의 권세 아래 위대한 왕 아르군이 프랑스 왕에게…말하였노라: 나는 그대가 사이메르 사구라(Saymer Saggura, 랍반 바르 사우마를 지칭)의 인도 하에 사자들 편으로 일한국 전사들이 이집트를 공격한다면 그대가 지원할 것이라고 기별해온 말을 받아들였노라. 우리 역시 하늘에 맹세컨대 호랑이 해 겨울 말미(1290)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힘을 보태고 이른 봄 다마스쿠스에 머물 것이다(1291).

그대가 약속한 대로 그대의 전사들을 보내서 이집트를 공격한다면, 하늘에 맹세컨대 나는 그때 가서 그대에게 예루살렘을 줄 것이다. 만약 우리 전사들 중 어느 누구라도 예정된 것보다 더 늦게 도착한다면 만사가 헛일이 되어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내 말에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나 또한 그대가 사자들 편으로 기꺼이 부쳐온 프랑스의 선물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미케릴(Myckeril) 편으로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노라: 하늘의 힘과 왕들의 위대함을 만 천하가 알게 될 것이다. 이 편지는 혼들론(Ho'ndlon)에서 황소 해 이른 여름 여섯째 달에 기록되었노라.”

45 John Andrew Boyle,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70–71; E. A. Wallis Budge, *The Monks of Kublal Khan Emperor of China*,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928), 165–97.

46 [https://www.wikiwand.com/en/Rabban\\_Bar\\_Sauma/France\\_royal\\_archives](https://www.wikiwand.com/en/Rabban_Bar_Sauma/France_royal_archives)

유럽인들과의 동맹 결성을 위한 서신교환은 끝내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아르곤의 시도는 포기되고 말았다.<sup>47</sup> 그러나 랍반 바르사우마는 동양과 서양 간의 의사소통을 격려한 매우 중요한 접촉들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필립 왕의 몽골사절단뿐만 아니라 교황청 역시 몬테코르비노의 지오반니(Giovanni da Montecorvino)같은 선교사들을 몽골 궁중으로 파송하였다.

#### (4) 노년

유럽 사절단을 다녀온 후 바르사우마는 바그다드에서 여생을 보냈다. 아마도 이 시기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중심으로 한 여행기를 썼다.

이 여행기는 1928년에 월스 버지(E. A. Wallis Budge)가 영어로 번역하여 “중국 황제 쿠빌라이 칸의 수도사들 또는 유럽 왕들에게 보낸 몽골 칸들의 특사이자 전권대사인 랍반 사우마와 아시아에서 동방교회 총대주교 마르 야흐브-알라하 3세가 된 마르코스의 생애와 여행 역사(*The Monks of Kublai Khan, Emperor of China or The History of the Life and Travels of Rabban Sawma, Envoy and Plenipotentiary of the Mongol Khans to the Kings of Europe, and Markos Who as Mar Yahbh-Allaha III Became Patriarch of the Church of the East in Asia*)라는 긴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하면서 서방세계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이 여행기는 서양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극동, 특히 유목문화 배경을 지닌 외부 관찰자의 시각이기는 하나,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십자군 말엽 중세 유럽을 비서구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소중한

47 Robert Mantran, “A Turkish or Mongolian Islam,” In Robert Fossier,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the Middle Ages: 1250-1520*,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98.

한 이야기들이다.

1294년 고국이 아닌 먼 이국 땅 바그다드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였다. 그러나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한 동반자이자 애 제자 마르코스와 여러 교우들이 천국으로 그를 환송하였으니 그리 외롭지는 않았으리라.

#### IV. 동방기독교사 연구의 선교학적 평가

이상에서 랍반 바르 사우마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의 오스로에네 왕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선교적 상황을 선교운동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방 기독교가 각 시대마다 직면한 역사적 정황(historical context)이라는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선교 현실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동방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동방기독교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박해를 이겨낸 교회의 산 열매이다. 오스로에네 왕국의 기독교회는 다대오와 아브가르 5세와의 만남 이야기에서 나타난 내용처럼 특정 사건을 통해 단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브가르 5세(B.C. 4-A.D. 7 또는 A.D. 13-40)에 처음 전해진 복음이 아브가르 8세(177-212) 때 열매 맺기까지 거의 한 세기 반 정도 시간이 걸렸다. 비 정경 출처에서는 박해 받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격려하려는 선교적 열정이 엿보이지만, 실상 선교는 교회와 신자들이 세월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기에 그 생명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www.kci.go.kr

둘째, 동방기독교의 선교는 전략적 방향이 맞을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오스로에네 왕국의 기독교회는 인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시리아어 사용자들을 겨냥한 전략적 선교의 결실이었다.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같은 헬라화 된 도시 세계와는 달리, 오스로에네 왕국과 아디아베네 왕국 등 동방의 아람어권 세계는 비헬라화 된 사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겨냥한 상황화 된 성경번역이나 교회의 가르침 등의 경험이 먼 훗날 미지의 동방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동방기독교의 선교는 정치 집단의 권력이나 시대 사상과의 타협에 굴하지 않을 때에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스로에네 왕국이 망한 후 유민의 발걸음을 동쪽으로 옮겼을 때, 시리아 교회는 기존의 조로아스터 종교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페르시아 정착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순교 사회들은 동방교회 문헌들에 상술되어 있다. 그러나 서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택했던 길처럼, 동방에서 그들은 동일한 순교의 길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산 편지로 읽혔다. 그 결과 세상의 의심을 극복하면서 페르시아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졌다.

넷째, 동방기독교의 선교는 반드시 비판적 상황화만으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때로는 역상황화가 필요할 때도 있었다. 시리아 교회가 끝까지 자기 문자와 언어를 포기하지 않은 점이 선교학적인 면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통용된 기존 문자 체계들이 거의 정치집단과 관련된 국가종교 언어로서 사용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시리아 교회의 선교언어 선택을 당대의 역사적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 시리아어 고수로 인해 교회가 인종적, 언어적 섬, 즉 계토로 전략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방기독교의 선교는 반드시 현지인 일꾼들의 참여를 통하여 그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당대(唐代)의 대진경교유행중국비나 원대(元代)의 랍반 바르 사우마와 랍반 마르코스의 사례는 이를 잘 말해준다. 약화된 페르시아 본토 교회에서는 바르 사우마 일행 이전에도 활동한 투르크족 출신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는 본국교회와 선교지 교회 간의 교류와 소통, 그리고 서로를 세우고 인정하는 선교 문화가 정착해 있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선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투자가 된다. 선교 현장에서의 결실이 도리어 훗날 현재의 선교사 파송국가의 교회들인 우리를 먹이고 살릴 수도 있는 날이 안 온다는 보장을 누구도 쉽게 말할 수는 없으리라.

여섯째, 동방기독교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쉽게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한때 불같이 일어난 시리아 교회의 동방선교는 오랫동안 그 맥이 끊어졌다. 그에 반해 계속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소수 집단으로 전략한 교회는 조로아스터교 아래서도 이슬람 제국들 아래서도 견디어 내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동방과 서방이 오랫동안 단절된 원인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 흑사병 창궐,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북 지역의 이슬람화 등 여러 설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음 또한 사실이다. 살아 남았다고 성공한 선교가 아니고, 사라졌다고 실패한 선교가 아니다. 지금 그 잊혀진 땅에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지가 벌써 삼십 여년을 넘겼다. 짧은 기간에 비하면 초기 시리아교회에 비해 너무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 동

방교회사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는 선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운동의 역사를 조망해야 한다.

## V. 동방기독교사 연구의 남은 과제

동방기독교의 선교역사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또다른 선교학적 과제들을 제시한다. 고대부터 시작된 동방교회의 선교운동은 터키에서 중국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북경까지 실크로드의 시발점과 종착점 간의 동선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였던 역동성을 지녔다. 이 역동성은 시대의 정치환경과 종교 상황의 변화와 함께 때로는 단절되고, 때로는 다시 연결되면서 지속되어왔다. 과거의 동방기독교는 초기에는 실크로드 도상의 조로아스터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같은 전통종교들의 도전에 직면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마니교, 이슬람 등 유사 기독교나 신흥종교 등의 도전에 직면하다가, 14세기 이후에는 이슬람이 주류 종교인 무슬림 사회로 고착되어 버렸다. 이 무슬림 사회는 크게 아랍인, 페르시아인, 투르크인 지배층에 의해 통치되어왔다.

이런 정세 변화 가운데 기독교 동방교회는 각 시대마다 달라진 선교 상황과 그 대상들을 상대하면서 선교적 책무를 감당해왔다. 페르시아와 중근동의 시리아 교회는 이슬람 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교전략을 계속 개발하여야 했고, 중앙아시아와 동북 아시아의 경교는 샤머니즘, 토속종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배경과 문화들에 적합한 상황화 시도를 계속해야만 했다.

오늘날 실크로드 도상의 선교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www.kci.go.kr

동방기독교사에서 그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실크로드 도상에서 동방교회가 겪었던 선교적 경험과 다양한 상황화 시도를 통해 이슬람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였다.

첫째, 서방 시리아 고대교회와 동방 경교 문헌들 간의 비교문헌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비교문헌연구는 동방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 선교현장에 적합한 상황화를 어떻게 시도하였는지를 문헌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비교연구는 실크로드 도상의 기존 종교 현상이 비교적 늦게 이 지역으로 진출한 이슬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연구 성과는 중앙아시아 수피즘의 기원과 확산이 실크로드와 지중해의 기독교 세계에 미친 영향 및 기독교 세계의 이슬람 선교의 역사적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서방 시리아교회와 동방 경교에 대한 비교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동방기독교사의 연구가 과거사에만 천착해 왔다면, 이제는 종교사, 비교신학, 종교변천사, 기독교와 타종교들과의 만남 역사로 연구 범위를 넓혀야 한다. 왜냐하면 터키부터 이란, 중앙아시아 및 중국 등 과거 경교와 관련된 지역들의 지배종교가 이슬람 제국들의 정복과 팽창, 공산주의 발흥과 정착 등으로 인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종교 환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교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변방(marginality)에서 중심(centrality)로 진입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근동과 실크로드 도상에서 한때 중심성을 확보하였으나, 이슬람 정복 이후 다시 변방으로 밀려난 기독교 선교운동을 통해 현대 선교의 교훈을 얻

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한번 기독교 선교운동사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한 선교전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일시적인 악화나 단절 현상에 좌절하지 않고, 선교 운동의 비전과 재도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

셋째, 동방기독교의 상황화와 혼합주의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슬람화 되어버린 과거 기독교 전파 지역인 실크로드 선교에 있어서 건전한 상황화 선교신학을 추구하게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경교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동방기독교의 본산지인 시리아 교회가 겪은 역사적 교훈과 경험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경번역 및 편찬에 있어서 타티안, 몰, 엠헤렘(Tatian, Mor Ephrem) 같은 지도자들은 디아테사론과 페쉬타 등 교회의 상황화 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시리아어 또는 고대 아람어권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런 역사적 선교 경험으로 인해 동방 교회의 상황화 작업은 신학, 교리, 예배와 전례 형식 및 복장 등 문화와 교회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문화신학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기에 문헌연구와 민족지학적 연구 등 다양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실크로드 도상에서의 동방교회는 샤머니즘, 불교, 도교 등에 대한 상황화 시도, 그후 이슬람 도래기의 기독교, 전통종교, 이슬람 간의 상호영향은 혼합주의적 종교현상을 보여왔다.<sup>48</sup> 실크로드 도상의 투르크족 이슬람은 일찍부터 하나피파에 속하였다.<sup>49</sup> 중앙

48 Resul Ay, 'Bizans'tan Osmanliya Anadolu'da Heterodoks İnanışlar: 'Oteki' Dindarlığın Ortak Doğası Üzerine (650-1600)', OTAM, 31/Bahar 2012, Kirikkale Üniversitesi, 1-40.

49 <http://www.ecoi.net>, Australian Government, *Refugee Review Tribunal*, "Country Advice China-CHN36797-Xinjiang-Islam-Uygurs-Women-Sufism-Hanafis-Sunnis-Syncretic-Shamanism-Three Evils 2016"

아시아 투르크족은 전통신앙인 샤머니즘 체계에다 기독교를 수용하였고, 그 후에는 비교적 타종교와 문화에 대해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하나피파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런 종교적 토양은 전통종교에 바탕을 둔 기독교, 마니교, 이슬람, 불교 등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투르크 민간종교 현상학, 상황화 선교신학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선행 연구는 샤머니즘 세계관을 극복한 기독교적 세계관, 예배형식, 메시지 내용, 타문화권 선교 커뮤니케이션학, 기독교 혼합주의 현상 극복하기 등 투르크권 선교에 적합한 비판적 상황화 전략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결과 범 투르크권 이슬람 선교에서 텡그리즘과 수피즘 등에 대한 세계관 분석 작업같은 학제간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실크로드 도상의 종교혼합주의적 현상 중 수피즘이 서방 기독교 세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중해 세계의 남동부 변방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정통 이슬람보다 더 오랫동안 깊게 서유럽 기독교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수피즘이었다.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 발칸반도와 동유럽, 러시아의 기독교 세계에 진출하면서 자리 잡은 이슬람은 수피즘의 영향을 깊이 받은 투르크화된 이슬람이었기 때문이다.<sup>50</sup> 따라서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및 지중해 동부권의 이슬람 혼합주의 현상이 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터키 메블라나 종단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에 대한 기독교 선교신학적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는 과거 실크로드 도상의 대중종교에 대한 동방기독교의 접근을 통해 얻은 역사적 상황화 교훈을 현재 터키의 대중 이슬람에 지

50 Chris Carr, "Contextualization of Sunni Hanafi Islam and Christianity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Ufa and Bashkortostan, Russia," *World Religions' Course, 2016,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28.

혜롭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동방기독교의 선교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동방교회는 왜 현지어를 사용하면서도 자기 언어를 선교지에서 계속 고수하였을까? 이 의문은 현 시점에서 고대 세계를 바라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동방교회의 페르시아 선교 시기와 실크로드 선교의 초기 시절 간에는 선교 현지 언어에 대한 정책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방교회가 페르시아에 진입한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 경전어인 아베스타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언어는 훗날 인도 북부로 이주한 아리안족의 베다 경전어 산스크리트어로 발전되었다.<sup>51</sup> 실크로드 도상의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경우 돌궐어와 소그드어 등의 고대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두 경우 모두 자기 문자가 있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고대 문자이기에 대중들에 의해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종교계층이나 상인계층 등 특정계층을 위한 언어로 그 용례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페르시아에서의 동방교회는 조로아스터교의 적대적 환경 속에서 자기 종교인 기독교 선교언어로서 시리아어와 그 문자체계를 유지하면서, 터키 남동부의 본산지 교회 등 인근 교회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였다. 이런 언어 생활이 시리아 교회의 신자들로 하여금 조로아스터교 사회 속에서 언어와 문화 등에서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투르크족이 사용한 돌궐어와 타지키스탄 지역의 소그드인들이 마니교의 영향으로 받으면서 개발한 소그드어의 문자체계는 그리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비교적 후대에 실크로드 지역에 소개된 시리아어의 보급은 동방교회가 여러가지 목

51 <http://www.sjsu.edu/faculty/watkins/sanskritavestan.htm> (accessed on 12th Mar, 2016)

적에서 선택한 문화 선교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본다. 시리아어의 보급이 현지의 문자율을 높인 선교(Literacy mission)였다면, 오늘날 문화선교와 교육선교의 새로운 장을 연 선교전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 한 예로서 랍반 사우마 일행이 성지순례를 위해 서방으로 여행하였을 때 언어에 큰 불편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실크로드 도상의 국가들 가운데 불고있는 한류 열풍과 한국어 학습 바람에 대해서도 이런 선교언어 정책의 전략적 가능성을 갖고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섯째, 서방 시리아 교회와 동방 경교의 역사가 각각 선교전략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서방 시리아 교회의 경우 자기 언어와 문자 고수, 기독교 사제들과 교회 예배 양식 등에서 어느 정도 배타적인 면을 보였다. 이런 차별화를 통한 생존 중심의 선교 신학은 서방의 시리아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슬람의 신학적 공격에 정체성 위기를 맞자 이에 대한 변증과 논증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하의 초기 시절 다마스쿠의 요한등의 공격적 변증은 이후 동방교회의 변증 신학이 발전하면서 바뀌어 갔다.

그에 반해 동방 경교의 경우 소수인 기독교가 타종교가 다수인 사회 속에서 초기 정착을 위해 적용한 전략으로서 적응주의를 선택하였다. 이런 선교신학은 훗날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 진출한 가톨릭 선교신학의 원조격으로 여겨진다. 로마가톨릭 선교사들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원 제국의 변방에 생존하고 있었던 동방 경교의 여러 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경교의 생존 비결인 적응주의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2</sup> 중국의 가톨릭 선교

52 Vladimír Liščák, "Franciscan Missions to China and the Czech Crown Lands" (from the 16th to the 18th Century), *ARCHIV ORIENTÁLNÍ* 82, 2014, 529-541.

사들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등을 통해 중국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선교에 있어서 현지인들에 대한 개방적 태도, 중국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복장, 언어, 문화, 예배, 교회양식 등에 다 중국문화를 반영하였다. 이 적응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복음주의적 문화신학에 대한 통찰력을 더해 줄 것이다.

## VI. 나가는 말

우리는 동방 경교와 서방 시리아 고대교회의 망각과 투쟁의 역사를 랍반 사우마 일행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들이 사역하였던 페르시아 일한국은 그 당시 이슬람 세력의 위협 하에 놓여있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 국가들과의 연대를 도모한 일한국 칸들의 특사로서 활동하였으나, 끝내 일한국은 이슬람으로 국가 개종을 하고 말았다. 몽골 초원 시절부터 대대로 동방 경교의 기독교 가정이었던 일한국 통치자 가계의 신앙 역사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 가운데 이슬람 개종자가 나옴으로서 페르시아 교회는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랍반 사우마와 페르시아 교회가 페르시아의 이슬람화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역사는 우리에게 터키에서 이란까지, 이란에서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까지 실크로드의 시작과 종착역에서 무슬림들을 만나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동방기독교의 선교정신을 따라 현재 눈 앞에 펼쳐진 광대한 이슬람 벨트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터키와 이란, 중앙아시아, 중국 선교 간에 함께 협업



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안한다.

첫째, 텍산 산맥에서 토로스 산맥까지 실크로드 국가들이 다 함께 전략적으로 과거 동방기독교의 선교역사에 대한 현대 이슬람 선교의 재조명을 시도할 연구와 개발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크로드 상의 모든 국가의 교회들이 연결 고리를 갖고 신 동방선교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경교 연구를 위한 공동주제들을 연구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발표 기회를 세미나와 백서 발간 등 학술 작업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 네스토리우스 해석에 대한 연구 경향 같은 주제들이 있다.

셋째, 투르크 권과 페르시아권 선교에서 시도된 상황화를 역사 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전세계 실크로드 사회를 향한 이슬람 선교의 상황화 전략을 공동연구 과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소망을 품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방 기독교가 걸었던 선교의 유산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과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현재 샤머니즘, 수피즘, 기독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적 요소들이 얽히고 설킨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선교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 참고문헌

- 김광수. 『동방기독교사』(東方基督教史).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호동. 『동방 기독교와 동서문명 II』. 서울: 까치글방. 2002.
- 김호동. “이사 켈레메치(1227-1308)의 생애와 활동,” *중앙아시아 학회*, 『중앙아시아연구』, 11권 75-114. 2006.
-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서울: 창비. 2013.
- Ay, Resul. “Bizans’tan Osmanliya Anadolu’da Heterodoks İnanışlar: ‘Oteki’ Dindarlığın Ortak Doğası Üzerine (650-1600).” *OTAM*, 31/Bahar 2012, Kirikkale Üniversitesi, 1-40. 2012.
- Bauer, Walt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Robert Kraft & Gerhard Krodel e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 Boyle, John Andrew. *The Cambridge History of Iran Vol.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dge, E. A. Wallis. 1968.
- The Monks of Kublal Khan Emperor of China*,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928.
- Bruinessen, Martin van. “Reflections on Midyat and Tur Abdin,” “Kesf-i Kadim: Matiate’den Midyat’a.” *International Midyat Symposium held in Midyat*, 7-9 October, 1-11. 2011.
- Burkitt, Francis Crawford. *Early Eastern Christianity*. London: John Murray. 1904.
- Carr, Chris. “Contextualization of Sunni Hanafi Islam and Christianity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Ufa and Bash-

- kortostan, Russia.” *World Religions’ Course,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28. 2016.
- Liščák, Vladimír. *Franciscan Missions to China and the Czech Crown Lands (from the 16th to the 18th Century)*, AR-CHIV ORIENTÁLNÍ 82, 529–541. 2014.
- Mantran, Robert  
1986 “A Turkish or Mongolian Islam.” In Robert Fossier,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the Middle Ages: 1250–1520*, volume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rkovic, Alexander. “Prelude to Constantine: The Invented Tradition of King Abgar of Edessa,” Ph.D Diss., Vanderbilt University. 2002.
-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Ἐκκλησιαστικὴ ἱστορία)*, C. F. Cruse, New York: T. Mason and G. Lane. 1839.
- Scher, Addai. *Histoire nestorienne inédite (Chronique de Séert)* II/1, Paris: Patrologia Orientalis 7. 1911.
- Zehiroğlu, Ahmet M. *Bar Şauma’n i n Karadeniz Yolculuğu*, Trabzon, Türkiye. 2014.
- Australian Government, 2016 *Refugee Review Tribunal*: “Country Advice China-CHN36797-Xinjiang-Islam-Uygurs-Women-Sufism-Hanafis-Sunnis-Syncretic-Shamanism-Three Evils 2016” (<http://www.ecoi.net>)
- Brock, Sebastian, “TUR ‘ABDIN – a Homeland of Ancient Syro-Aramaean Culture,” Turabdin: Living Cultural heritage, the preface,

www.kci.go.kr

- 22-23 ([www.aramaic-dem.org/English/History/14.htm](http://www.aramaic-dem.org/English/History/14.htm))
- Jullien, Florence. "EAST SYRIAN MONASTERIES IN SASANIANIRA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5.
- \_\_\_\_\_. "ABRAHAM OF KAŠKAR,"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15.
- Sawma, Gabriel "The Great Monastery of St. Gabriel in Captivity"  
([www.assyriatimes.com](http://www.assyriatimes.com) & [s.wsj.net/article SB1236384  
77632658147.html](http://s.wsj.net/article/SB123638477632658147.html))
-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east-syrian-monasteries>  
(accessed on 11 November 2015).
-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abraham-of-kaskar> (accessed  
on 29 October 2015).
- <https://www.wikiwand.com/en/Osroene>
- [https://www.wikiwand.com/en/Abgar\\_V#/CITEREFBauer1971](https://www.wikiwand.com/en/Abgar_V#/CITEREFBauer1971)
- <https://namu.mirror.wiki/w/오리엔트%20정교>
- [https://www.academia.edu/11320426/Bar\\_Saumas\\_Black\\_Sea\\_  
Journey\\_1287\\_](https://www.academia.edu/11320426/Bar_Saumas_Black_Sea_Journey_1287_)

■ ABSTRACT

# The Eastern Nestorian Church and the Western Syrian Ancient Church: A History of Oblivion and Struggle with Rabban Bar Sawma's Life

Jae Hwa Le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goals of future missions for present day Christians in the light of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early Nestorian missionary movement with a clearer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Nestorian missions than thus far understood. The Nestorian Church originated in the 5th century A.D. during the Sassanid Empire in Persia. It is often known as the Syrian Church or the Syrian Ancient Church in the West and Kyungkyo(景教) in the East. The Nestorian Church spread to Central Asia and further eastwards via the Silk Road reaching China by the 7th century A.D.

I shall demonstr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Nestorian Missions in modern day Turkey, Central Asia, and in Turkic na-

www.kct.go.kr

tions by focusing on the life of Rabban Bar Sawma and the growth of Nestorian Church during the Kingdom of Osroene and the Sassanid Empire. The paper will weave stories of the Mongol Ilkhanate of Persia and its relation to the Christian Mediterranean countries in the 13th century A.D. and to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Persian Gulf of Mongolia and in the Middle East.

**Keywords:** the Nestorian Church, Kyungkyo(景教), the Syrian Church, Rabban Ban Sawma, Nestorian missions